

공급망 전쟁시대… 초격차 기술 가진 ‘슈퍼 을’ 기업 키운다

산업부, 5년간 910억 R&D 자금 지원
2030년까지 ‘슈퍼 을’ 15개사 육성
패키지 기관 등 협력모델 5건 승인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슈퍼 을(乙)’ 기업 5곳을 추가로 선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협력모델에 5년간 91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제3기 슈퍼 을 기업’으로 ▲한화오션(잠수함용 연료전지 핵심장비) ▲선익시스템(AI 기반 OLED 자율증착장비) ▲이오테크닉스(초고속레이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허 장 재정경제부 2차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승인, 제3기 슈퍼 을(乙) 선정 결과, 2026년도 소부장 시행계획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열처리장비) ▲에코프로비엠(전고체전지 용융화물계 고체전해질) ▲두산전자사업

(위성통신용 저손실 소재 및 안테나 모듈) 등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과

제당 200억원 규모로 7년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5개의 ‘슈퍼 을’ 핵심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5건도 새로 승인됐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유리 패키지 기관’과 초미세 공정 핵심 소재인 ‘1000W급 EUV 펄리클’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협력모델 사업에는 5년간 총 910억 원의 R&D 예산이 지원되며,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금융·세제 혜택, 실증 평가 등 범부처 차원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병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앵커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생태계를 직접 설계하는 ‘생태계 완성형’과 지역 특화단지 간 시너지를 도모하는 ‘지역주도형’ 모델을 신설해 기술 협력의 외연을 크게 넓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하반기 중 ‘소부장 핵

심전략지도’를 수립해 기존 200대 핵심전략기술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AI 및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실증·사업화 지원체계를 대폭 확대하는 ‘2026년도 소부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기술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도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2차 소부장 기본계획(‘26~’30)의 3대 역량(혁신·시장·생태계) 강화 전략이 슈퍼 을 기업 확대와 협력모델 다양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주요·공급기업의 다양한 협력수요를 반영하는 협력모델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부산항 스타트업, 싱가포르서 기술력 입증

창업지원 입주사 ‘언더워터솔루션’
글로벌 ‘스마트 포트 챌린지’ 선정

부산항만공사가 지원해 온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싱가포르 연구기관의 인정을 받았다. 이 스타트업은 향후 싱가포르 현지 해양기업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화 기회를 모색할 기회를 얻었다.

공사는 ‘1876 Busan’의 입주기업인 ㈜언더워터솔루션이 싱가포르 PIER71 주관 ‘스마트 포트 챌린지 2026’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 및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

PIER71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싱가포르국립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해양·항만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기관이다. 스마트 포트 챌린지는 현장의 현안을 전 세계 우수한 기업들의 기술로 해결하는 창업 경진·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 시작 이래 매해 50여 개국 30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언더워터솔루션은 부산항만공사가 해운·항만·물류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플랫폼(시설물) 1876 Busan에 입주해 있다. 수중로봇과 인공지능 기반 해운·항만 및 해양산업의 수중작



‘1876 Busan’ 전경

/부산항만공사

업을 무인화·디지털화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선박과 항만 현장에서 무인수중 검사와 유지관리, 선급검사 대응 서비스를 자체 기술력으로 제공하고 있다.

언더워터솔루션이 제안한 기술은 ‘선급검사 대응형 수중로봇 선박검사 및 수중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다. 무인수중로봇으로 선박 수중부의 영상·음파탐지(sonar)·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으로 선체 오염, 손상 및 프로펠러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 선박별 데이터를 통합해 검사·정비이력을 축적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업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10주간 진행되는 PIER71의 기업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싱가포르 현지 해양기업들과 기술 검증 및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는 일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이 운영하는 실증·신제품 개발 지원금(원화 2억 5000만 원) 신청자격을 확보하고, 올해 11월로 예정된 최종 결산에도 진출한다.

공사는 그간 1876 Busan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마케팅 및 기술 홍보, 부산항 현장 실증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해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저어새 번식쌍 27% ↑… 남해안 첫 번식

국립생태원, 정밀조사 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저어새’의 국내 번식 개체군이 1년 새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그동안 서해안에 집중됐던 번식권이 남해안까지 확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올해 전국 저어새 번식지를 정밀조사한 결과, 국내 저어새 번식쌍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고 남해안에서 최초로 번식이 확인되는 등 개체군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국 번식지 조사에서 확인된 국내 저어새 번식쌍은 총 3300여 쌍에 달한

다. 이는 지난해(2600여 쌍)와 비교해 700여 쌍(약 27%) 증가한 수치다. 저어새는 전 세계 개체군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해양성 조류로, 지속적인 서식지 관리와 민관 협력 기반의 보전활동이 개체수 급증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서해안 무인도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저어새의 번식 권역이 남해안으로 넓어지는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됐다.

전남 순천시 순천만 인근의 ‘장구섬’에서 남해안 최초의 저어새 번식이 공식 확인됐으며, 한국물새네트워크의 제보를 통해 인천 영종도 매도랑에서도 신규 번식



동지에서 새끼를 육추 중인 저어새 /국립생태원

이 포착되는 등 국내 번식권 자체가 넓어졌다.

국립생태원은 안정적인 저어새 개체군 보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인천 저어새 공존협약제’를 운영하며 관계기관,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번식지 정밀조사 및 서식지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세종=한용수 기자

반복시 예외 없다… 공정위, 고발원칙 강화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고발지침 개정

앞으로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거짓 지정자료를 제출했을 때, “의무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크면 원칙적으로 형사 고발조치된다.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을 반복할 경우 예외 없이 고발하는 기준으로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발지침은 위반 의무의 ‘인식가능성(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과 ‘중대성’을 함께 고려했다. 이로 인해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를 원칙 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인식가능성이 불분명해도 결과와 규모가 중대하면 고발 대상에 올려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인식가능성이 경미함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고발을 면할 수 있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정황 파악에만 쓰이던 반복 위반 이력에 대해, 앞으로는 최근 3년 내 동일 행위가 반복되면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한다.

동일인(총수)이 직접 상당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거짓 기재한 경우는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 친족 소유 회사를 누락한 경우는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세부 기준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사익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 필리핀 원전사업 협력 MOU 체결

신규 원전 예비타당성 조사·기술 교류

한국수력원자력(이하한수원)이 필리핀의 대표 민간 에너지기업인 아보이티즈 파워(Aboitiz Power Corporation)와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남아시아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31일 경주 본사에서 협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과 다녔 아보이티즈 사장, 새턴 가린 필리핀 에너지 부 장관, 제리코 노그랄레스 필리핀 국영 전력공사 사장 등 양국 정부 및 기업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사는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 교류 ▲신규 원전 예비타당성 조사 협력 ▲교육·세미나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필리핀은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응

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정부와 민간 전력기업이 함께 원전 후보 부지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반 마련에 나선 상태다. 아보이티즈 파워는 화력·수력·태양광·지열 등 다양한 발전원을 운영하는 필리핀 대표 민간 전력사다.

키를로스 라몬 아보이티즈 기업지원총괄책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원자력이 필리핀의 에너지 안보와 기저전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고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은 “필리핀 원전 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한수원이 국내외 원전 건설과 운영을 통해 축적한 독보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보이티즈 파워와 긴밀히 협력해 필리핀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